

국제도서관연맹의 조직과 최근 활동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IFLA and It's Current Activities

곽 동 철(Dong-Chul Kwack)*

목 차

- | | |
|----------------------|------------------------------|
| 1. 서 론 | 4. 핵심추진사업의 사업별 주요 내용 |
| 2. 회원의 자격 및 구성 | 4. 1 도서관직진흥사업 |
| 3. 기구의 조직 및 기능 | 4. 2 자료보존사업 |
| 3. 1 기구의 조직 | 4. 3 국제출판물활용사업 |
| 3. 2 총회 | 4. 4 국제서지통정과 국제기계가독
형목록사업 |
| 3. 3 집행이사회 | 4. 5 국제자료유통과 원거리통신사업 |
| 3. 4 전문이사회 | 5.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활동 |
| 3. 5 본부 사무국 | 6. 우리 나라와의 협력 현황 |
| 3. 6 사업관리위원회 | 7. 제언 및 결론 |
| 3. 7 부회, 분과회, 원탁회의 등 | |
| 3. 8 출판 및 편집위원회 | |

초 록

국제도서관연맹의 제72차 총회가 2006년 한국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연맹의 조직과 활동을 조사하고, 아울러 우리 나라와 연맹과의 협력 현황 등을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도서관계가 이 연맹의 최근 활동 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또한 이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자세를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S

The 72nd IFLA general conference will be held in Seoul, Korea in 2006. And this study is to survey the organization of IFLA and it's activities, and to understand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FLA and so on. On the basis of the analyses we proposed, We would like to derive some effective perspectives that Korean librarians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should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activities of IFLA, and should prepare to achieve successful holding of the general conference.

* 청주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접수일자 2000년 3월 1일

1.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각 부문별 효율성 제고 등의 사유로 개혁의 속도를 배가하고 있다. 흔히 21세기는 세계화, 디지털화, 지식기반의 시대라고 일컫고 있다. 이 새로운 시기에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인간의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자원이 되며, 한 나라의 문화가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면 일류국가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삼류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오랫동안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도서관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운영을 활성화하여 왔다. 지금도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각종 문헌정보 목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문화정보시스템을 개발·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각 국가마다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통해 스스로의 문화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으며, 아울러 보편적인 세계주의를 추구하는 문화를 함께 구현해 나가고 있다.

우리 도서관계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나 단체에 가입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 나라 도서관계에서 일찍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관중의 사서들과 관련 인사들이 다양한 회원 신분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기구가 국제도서관연맹(IFLA)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도서관연맹은 1927년 스코트랜드의 에딘버러(Edinburgh)에서 개최된 “영국도서관

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총회”에 참석한 15개국 대표의 서명을 얻어 “국제도서관 및 서지위원회(International Library and Bibliographical Committee)”로 창설되었다. 1928년 제1차 총회가 이탈리아의 로마(Rome)에서 개최되었으며, 1929년 제2차 총회도 이탈리아의 로마, 플로렌스(Florence), 베니스(Venice)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베니스 총회에서 본 연맹의 정관이 채택되면서 그 명칭도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으로 개칭되었으며, 그 후 수 차례에 걸쳐 정관의 개정이 있었다(이병목 1975, 8-10; IFLA 1999a).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 연맹 회원(정회원 및 준회원)의 증가는 기존 정관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본 연맹은 1971년에 정관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1975년 노르웨이 오슬로(Oslo)에서 개최된 제41차 총회에서 정관 개정에 대한 집중 토의를 거쳐, 1976년 스위스의 로잔(Lausanne)에서 개최된 제42차 총회에서 새로운 정관을 채택하였다(박옥화 1982, 110). 이 정관에 의해 본 연맹은 그 때까지 표결권이 없이 준회원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왔던 도서관, 도서관학교, 서지기구 및 도서관과 관련있는 유사한 기구들에 표결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기존 명칭에 기관(institutions)을 첨가하여 현재 사용하는 명칭인 국제도서관연맹(IFL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으로 개칭되었다(Harvard William 1982, 79).

국제도서관연맹은 초창기 상당기간 동안 거의 유럽지역의 사서들이 중심적인 활동을 하

고 일부 미국지역 사서들이 가세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유대관계로 말미암아 국제적 도서대출과 교환, 서지의 표준화, 도서관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을 유지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의 서울에서 1976년에 연차총회는 아니지만 연맹차원에서 개최된 공개전문직 회의인 “국제도서관협회연맹 국제세미나(IFLA Worldwide Seminar)”가 유럽과 미국 및 캐나다를 최초로 벗어난 회의였다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본 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구의 조직구조와 재정결핍이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였기 때문에 성장속도가 느렸지만,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 개발도상국 및 제3세계 회원의 증가, 조직의 활성화 등으로 도서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적 기구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국제적 기구로 성장한 국제도서관연맹은 영리 활동을 추구하지 않는 독립적인 국제비정부협회(an independent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association)로서 본부를 네덜란드 헤이그에 두고 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153개국으로부터 18국제협회회원, 141국가협회회원, 1,121기관회원 및 322개인가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38후원자(sponsors)와 자문신분을 가진 기구들이 함께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IFLA 1999b, 30). 또한 이 연맹은 세계적 규모의 회원을 지니고 도서관 활동의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다른 국제기구 및 국내 기구와 연대하여 사서들의 통일적 대변자로서 활동하는 점에 있어서 전세계적, 종합적,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도서관연맹의 주요 목적은 서지, 정보

서비스, 사서의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관 활동에서 국제적인 이해, 협력, 연구 및 개발을 증진하고, 아울러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를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IFLA 1999e).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맹은 “모든 사람은 사회의 문화를 자유로이 누리, 예술을 즐기며, 과학적 진보와 그 이득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 있다(IFLA 1999d). 따라서 본 고에서는 2006년 우리 나라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도서관연맹 총회를 앞두고 최근 국제도서관연맹의 조직구조와 활동 등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매년 개최되는 본 연맹의 총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사서들이 수동적이기 보다 능동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 나라 도서관계와 국제도서관연맹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며, 한국도서관협회의 총회 개최 준비와 관련하여 조그마한 기여를 하고자 한다.

2. 회원의 자격 및 구성

국제도서관연맹의 구성은 그 정관에 의하면 크게 나누어 회원(members)과 가입자(affiliates) 및 자문 신분을 지닌 기구(associations, organizations, bodies with consultative status)로 이루어져 있다(IFLA 1999e). 그 구성원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으로서 자격을 갖는 구성원은 협회 회원(Association Members), 기관회원(Institutional Members), 명예회원(Honorary

Members)으로 나누고 있다. 협회회원은 본 연맹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주로 관계된 도서관 협회, 서지·연구기관협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협회회원은 국가적, 다국가간, 또는 국제적 도서관·정보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활동해야 한다. 또한 기관회원은 도서관, 도서관학교, 서지·연구기관, 그 외에 본 연맹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주로 관계된 기관이나 기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명예회원은 집행이사회에서 추천으로 평의회에서 명예회장(Honorary Presidents)직을 수여 받은 과거 회장들과 도서관 분야에서 뛰어나게 수훈을 세우거나 본 연맹에 현저하게 봉사한 개인들에게 부여한 명예특별회원(Honorary Fellows)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가입자는 기관가입자(Institutional Affiliates)와 개인가입자(Personal Affiliates)를 인정하고 있다. 기관가입자는 도서관이나 도서관 활동과 근본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관심사를 표명하거나 본 연맹의 목적을 지지하는 기관과 기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개인가입자는 기관가입자와 동일한 의도를 지닌 개인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자문 신분을 지닌 기구들로는 한 종류 이상의 도서관 및 도서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적·다국가간 협회들이나 본 연맹의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국제적인 조직·기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한 구성원들 가운데 둘째와 셋째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가입자나 개인가입자 및 자문신분을 지닌 기구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를테면, 국제도큐멘테이션연맹(F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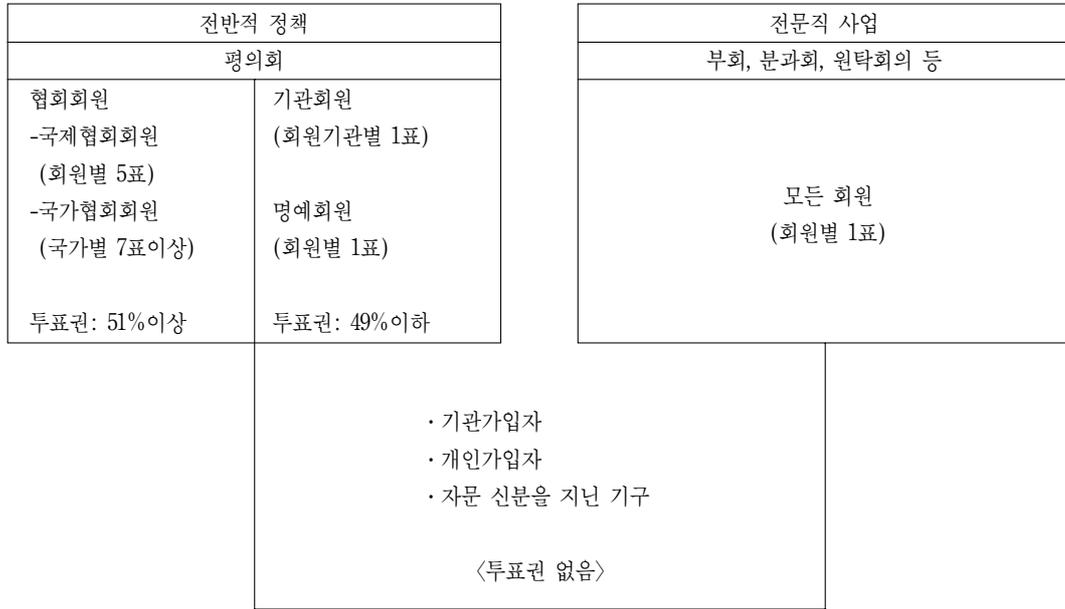
국제문서관협회(ICA), 국제성인교육협회(ICAE), 국제출판협회(IPA), 국제연속간행물데이터시스템(ISDS) 등이 투표권 없이 본 연맹의 활동에 참여하는 자문 신분을 지닌 조직·기구들이다. 이와 달리 도서관이나 도서관 활동에 주로 관계된 국제적인 조직·기구들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협회회원(International Association Members)으로서 국제도서관연맹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즉, 국제음악도서관협회(IAML), 국제공학계대학도서관협회(IATUL), 영연방도서관협회(COMLA), 유럽도서관연합(LIBER), 카리브해지역대학연구도서관협회(ACURIL), 브룬디도서관·문서관·도큐멘테이션협회(Association Brunlaise de Bibliothecaires, Archivistes, et Documentalistes), 스칸디나비아예술도서관협회(ARLIS/NORDEN) 등이 국제적 또는 국가단위의 협회회원으로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다(News Section 1988, 372-373).

국제도서관연맹의 구성원들은 투표권을 중심으로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IFLA 1999e; Wijnstroom 1980,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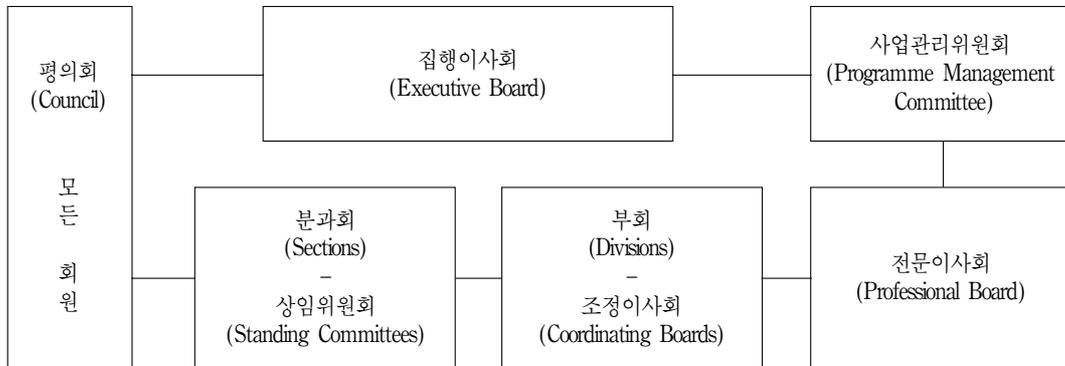
3. 기구의 조직 및 기능

3.1 기구의 조직

국제도서관연맹의 조직 체계는 크게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평의회를 중심으로 집행이사회, 전문이사회, 사업관리위원회, 부회, 분과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각각의 조직들은 상호간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운영되고



<그림 1> 국제도서관연맹의 구성원별 투표권



<그림 2> 국제도서관연맹의 조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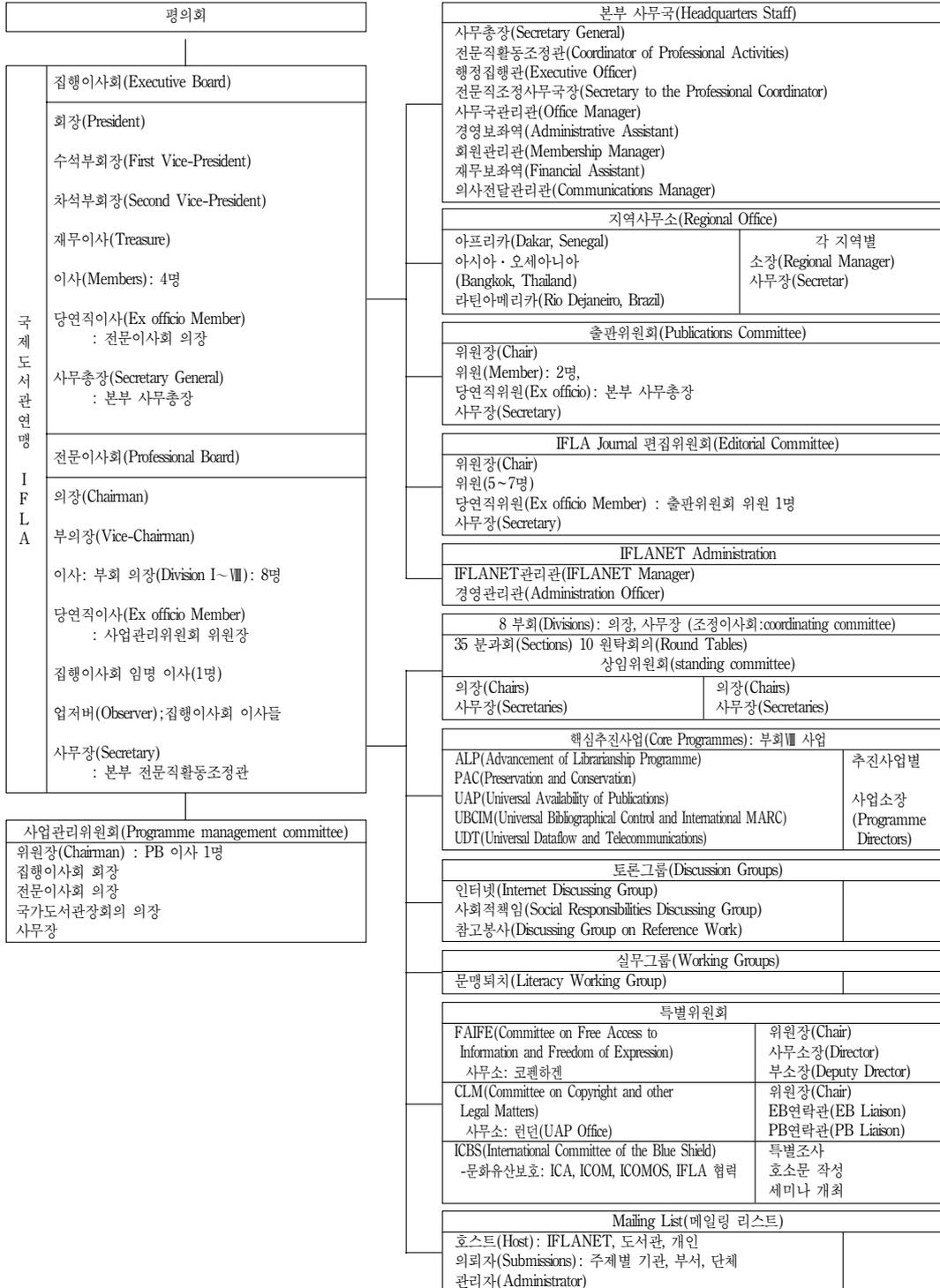
있다. 또한 분과회에서는 각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회에서는 부회별로 조정이사회를 두어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 조직 체계의 전반적인 골격은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전술한 국제도서관연맹의 조직 체계에 대해 본 연맹의 최근 정관 및 관련 자료들을 참조

하여 현재 시점의 조직별 구성원을 중심으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2 평의회 (The Council)

국제도서관연맹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그림 3> 국제도서관연맹의 조직별 구성원

평의회는 전체 회원 총회로서 본 연맹의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권한을 지니고 있다. 평의회 회의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적어도 2년마다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평의회 회의의 정족수는 훌륭히 규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협회회원의 50% 이상 출석하여 대표해야 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국 제도서관연맹 회원들은 각종 회의와 안건에서 부여받은 수만큼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협회회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들 협회회원의 투표권 수는 회원의 유형과 전년도에 국제도서관연맹에 기여한 연회비의 납부 총액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부여하고 있다.

본 연맹의 협회회원 가운데 국제적 협회회원은 매년 750 길더(NLG)를 연회비로 납부하고 평의회 회의에서 5표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국가단위 협회회원의 연회비는 국제연합(UN)의 평가척도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유네스코(UNESCO)의 국별 평가에 따라 국가별로 책정되는데 최하 750 길더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투표권은 전년도 연회비 기여도를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차 등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A그룹(7표), B그룹(14표), C그룹(21표), D그룹(28표), E그룹(35표)으로 구분하여 해당국가의 국가차원 협회회원들이 나누어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최하 7표 이상을 배정하고 있다. 그 외에 기관회원은 국제적 협회회원과 마찬가지로 750 길더를 연회비로 납부하고 1표의 투표권을 받으며, 개인가입자는 투표권 없이 연회비로 250 길더를 납부해야 한다(IFLA 1999e).

3. 3 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

국제도서관연맹의 전반적인 행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이사회는 평의회에서 선출되는 4년 임기의 회장, 5~7명의 이사들, 당연직 이사(전문이사회 의장), 본부 사무국의 사무총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함께 명예 이사로서 현재 13명의 명예회장과 17명의 명예특별회원이 참여하고 있다(IFLA 2000a). 집행이사회에서는 선출된 이사들 가운데 수석 부회장과 차석부회장 및 재무이사를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 회의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적어도 매년 두 번씩 개최되고 있다.

집행이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을 개략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테면 각종 회의 기획, 회비 책정 및 투표권 할당 권고, 회원의 자격 부여, 사무국 예산편성, 사무국 직원 채용 및 해임,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업무, 기타 전반적인 본 연맹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본 연맹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관리위원회와 함께 필요한 그룹, 위원회, 기구를 설치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 4 전문이사회 (Professional Board)

전문이사회는 의장, 부의장, 각 부회 의장 또는 그 대리자인 이사들, 당연직 이사(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 집행이사회에서 지명하는 투표권이 없는 1명의 이사, 업저버로 참가하는 집행이사회 이사들, 사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은 전기(前期) 이사회의 이사들 가운데

데 선임되며 임기는 2년이다. 부의장은 현 이사회의 이사들 가운데 2년 임기로 선임되며 연임할 수 있다. 본 이사회의 회의는 적어도 매년 1회씩 개최되고 있다. 모든 결정들은 절대다수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전문이사회는 전문직 활동의 조정과 계획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 활동의 기반을 8부회, 35분과회와 10원탁회의 및 실무그룹 등에 두고 있다. 본 이사회는 이러한 전문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집행이사회에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회는 매년 1회씩 집행이사회와 적어도 2년에 1회씩 평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본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3. 5 본부 사무국 (Secretariat, IFLA Headquarters)

국제도서관연맹의 본부 사무국은 집행이사회 직할기구로서 일상적인 조직운영, 조직과 관련된 연락업무, 연맹 내의 전문단체 및 기구들과의 조정, 집행이사회 및 전문이사회 사무국 유지, 연속간행물 출판에 관한 책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 본부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본부 사무국은 집행이사회에서 임명된 사무총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집행이사회는 본 연맹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사무총장을 해고할 수도 있다. 사무총장은 모든 중요한 문제에 관해 회장에게 자문을 해야 하며, 평의회나 집행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를 하지는 않지만 자문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사무총장은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국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직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집행이사회에서 임명하는 사무국의 전문직활동조정관은 전문이사회 사무장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행이사회는 본 연맹의 직원들에 대해 근무조건을 명시하여 직무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본부 사무국의 구성원은 <그림 3>에서와 같이 사무총장, 전문직활동조정관, 행정집행관, 전문직조정사무국장, 사무국관리관, 경영보좌역, 회원관리관, 재무보좌역, 의사전달관리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3. 6 사업관리위원회 (Programme Management Committee)

사업관리위원회는 1979년 집행이사회에서 설치기로 결정되어 그 해 조직을 구성하였다. 그 정관은 1979년 8월 24일 집행이사회에서 채택되고, 1985년 11월과 1986년 11월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본 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국제도서관연맹의 핵심추진사업을 조정하고 관리하며, 부회 및 분과회의 업무와 이러한 사업들 간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의 목표수립이나 재정보호 및 기능정립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1) 도서관직진흥사업(ALP), (2)자료보존사업(PAC), (3)국제출판물유통사업(UAP), (4)국제서지통정과 국제기계가독형목록사업(UBCIM), (5)국제자료유통과 원거리통신사업(UDT)을 주요 핵심추진사업으로 관장하고 있다.

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본 연맹의 회장(집행이사회 회장), 전문이사회 의장, 국가도서관

관장회의 의장(the Chairman of the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집행이사회에서 임명한 2명의 위원, 사무총장이 본부 사무국 직원들 가운데 임명한 사무국장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집행이사회에서 임명한 2명의 위원 중 1명이 2년 임기로 선임되며 연임할 수 있고, 전문이사회에 이사로 참석하게 된다. 사업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는 상기 구성원들의 참석은 물론이고 당연직으로 사무총장과 전문직활동조정관이 참석하며, 요청에 따라 전술한 5대 핵심추진사업의 사무소장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업관리위원회는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의 목표를 결의하거나 추진 방법 및 소요 자원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집행이사회에 사업의 소요예산을 요청하며, 나아가 사업들 사이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 사업의 설치, 강화, 중지를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관리위원회는 전기한 핵심추진사업이나 다른 추진사업을 위해 각 사업소장의 자문을 받아 직원의 직급을 결정하거나 사업 주최기관 대표자의 자문을 받아 사무총장이 임명하게 되는 사업담당자를 선택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매년 두 차례씩 전문이사회와 집행이사회에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3. 7 부회, 분과회, 원탁회의 등 (Division, Section, Round Table, etc.)

국제도서관연맹은 흔히 그 근간으로 불려지고 있는 부회(Division)는 분과회(Section), 원탁회의(Round Table) 및 실무그룹(Working

Group) 등이 모여 구성된 것이다. 회원과 가입자는 스스로 선택한 분과회에 등록하여 분과회의 사업을 발전시키며, 또한 운영을 맡은 주요 전문가그룹인 상임위원회에서 회원자격으로 사람들을 지명하고 선출할 수 있다. 각 분과회 의장과 사무장은 자신이 소속한 부회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재 본 연맹에 설치된 전문직 활동의 중심 조직들인 부회, 분과회 및 원탁회의의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IFLA 2000b). 이 조직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도서관 관계 및 학문의 성장에 따라 조금씩 변화·발전해 나가고 있다(IFLA 1999f).

국제도서관연맹의 전문직 활동을 위해 조직된 부회는 전문직 업무를 착수하고, 촉진하며, 조정하기 위해 (1)도서관의 유형, (2)도서관 활동, (3)지역적 활동에 따라 8개 분야로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각 부회는 부회별 산하 분과회에 등록된 회원, 가입자, 자문기구, 집행이사회 및 전문이사회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이사회는 부회의 중단 혹은 목표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부회의 설치와 위임사항을 집행이사회에 건의하고 있다. 집행이사회가 그러한 건의를 인정하게 되면 최종 결정을 위해 그 건의안을 평의회에 상정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이사회가 결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건의를 전문이사회에 회송하고 있다.

각 부회는 부회별로 산하에 5명 정도의 분과회 의장과 사무장으로 구성된 조정이사회(Coordinating Board)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회별 조정이사회는 각각 의장(Chairman), 사무장(Secretary), 재무담당관(Financial officer)을 둘 수 있다. 이러한 부회별

〈표 1〉 국제도서관연맹의 부회, 분과회, 원탁회의 명칭

제1부회	: 종합적인 연구도서관 부회 (General Research Libraries Division) - 국가도서관 분과회 (National Libraries) - 대학도서관 및 종합연구도서관 분과회 (University Libraries and other General Research Libraries) - 의회를 위한 도서관 및 연구봉사 분과회 (Library and Research Services for Parliaments)
제2부회	: 특수도서관 부회 (Special Libraries Division) - 정부(행정기관)도서관 분과회 (Government Libraries) - 사회과학도서관 분과회 (Social Science Libraries) - 지리 및 지도도서관 분과회 (Geography and Map Libraries) - 과학기술도서관 분과회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es) - 생물 및 의학도서관 분과회 (Biological and Medical Sciences libraries) - 예술도서관 분과회 (Art Libraries)
제3부회	: 일반 대중에 봉사하는 도서관 부회 (Libraries Serving the General Public Division) - 공공도서관 분과회 (Public Libraries) - 장애인봉사도서관 분과회 (Libraries Serving Disadvantaged Person) - 아동도서관 분과회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학교도서관 및 자료센터 분과회 (School Libraries and Resource Centers) - 맹인도서관 분과회 (Libraries for the Blind) - 다문화민족도서관서비스 분과회 (Libraries Services to Multicultural Populations) - 국가도서관서비스센터-원탁회의 (ROTNAC; National Centers for Library Services) - 국제대도시도서관협회-원탁회의 (INTAME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tropolitan Libraries) - 이동도서관-원탁회의 (Mobile Libraries)
제4부회	: 서지통제 부회 (Bibliographic Control Division) - 서지 분과회 (Bibliography) - 목록 분과회 (Cataloguing) - 분류 및 색인 분과회 (Classification and Indexing)
제5부회	: 장서 및 봉사 부회(Collection and Services Division) - 수서 및 장서개발 분과회 (Acquisition and Collection Development) - 문헌제공 및 상호대차 분과회 (Document Delivery and Interlending) - 연속간행물 분과회 (Serial Publications) - 정부간행물 분과회 (Government Information and Official Publications) - 희귀본 및 수고본 분과회 (Rare Books and Manuscripts) - 신문-원탁회의 (Newspapers)
제6부회	: 경영관리 및 기술 부회 (Management and Technology Division) - 보존 및 보호 분과회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 도서관건물 및 장비 분과회 (Library Buildings and Equipment) - 정보기술 분과회 (Information Technology) - 통계 분과회 (Statistics) -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분과회 (Audiovisual and Multimedia) - 경영관리 및 마케팅 (Management and Marketing) - 도서관협회경영관리-원탁회의 (Management of Library Associations) - 여성문제-원탁회의 (Women's Issues)
제7부회	: 교육 및 연구 부회 (Education and Research Division) - 교육 및 훈련 분과회 (Education and Training) - 도서관 이론 및 연구 분과회 (Library Theory and Research) - 독서 분과회 (Reading) - 전문직계속교육-원탁회의 (CPERT;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 이용자 교육-원탁회의 (User Education) - 도서관사-원탁회의 (Library History) - 문헌정보학 학술잡지-원탁회의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s)
제8부회	: 지역활동 부회 (Regional Activities) - 아프리카지역 분과회 (Africa) - 아세아 및 오세아니아지역 분과회 (Asia and Oceania)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지역 분과회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의장들은 전문이사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만약 그 구성원이 5명 미만일 경우에는 부회 산하 원탁회의의 임원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그래도 성원이 되질 않으면 새로운 이사 선출에 의해 충원하고 있다. 조정이사회의 각 이사들은 결원에 대해 부회 산하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의 위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이사로 추천할 수 있다.

부회별 특별한 과업은 조정이사회에 의해 촉진되거나 조정되며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다. 각 부회는 전문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부회와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부회와 연합으로 분과회와 원탁회의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실무그룹을 부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조정이사회는 적어도 2년에 한번씩은 평의회와 협력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부회는 그 부회에 소속된 일부 또는 전체 분과회에서 관심을 갖는 전문직 문제에 관한 회의를 총회(General Conference)의 일환으로 또는 별도로 조직해야 한다.

분과회는 소속부회 내에서 (1)특정 유형의 도서관, (2)특정 유형의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봉사, (3)도서관 기술, (4)특정 지역에서 도서관 봉사에 관련된 관심 분야에 속하도록 집단화하는 것이다. 각 분과회는 분과회에 등록된 회원, 가입자, 자문기구, 집행이사회 및 전문이사회 이사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분과회는 분과회의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의 집행을 책임지기 위해 5명 이상에서 20명 이하의 상임 위원회를 두고 있다. 어떠한 사람도, 지역분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라면,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정수는 해당 분과회가 설치된 소속부회

의 조정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각 분과회별 상임위원회는 위원들 가운데 2년 임기의 연임할 수 있는 위원장과 사무장을 선출하고 있다. 그들이 함께 그 조정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의장과 사무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러한 상임위원회는 적어도 2년에 한번씩 평의회와 연합하여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분과회별 특별한 과업은 부회와 유사하게 상임위원회에 의해 촉진되거나 조정되며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다. 각 분과회는 위임사항에 준거하여 사업을 개발하며, 업무를 추진하고, 회의를 조직하고 있다. 각 분과회는 소속 부회의 자문과 전문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분과회와 연합으로 원탁회의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실무그룹을 분과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각 분과회는 소속 부회가 그 과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즉시 해당 부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각 분과회는 적어도 2년에 한번씩 총회와 협력하여 모임을 개최해야 한다. 그 모임은 총회 기간 중에 개최하거나, 별도의 모임을 고려할 수도 있다.

각 지역의 분과회 상임위원회는 지역적으로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로 5명 이하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들로 구성되고 있다. 국제도서관연맹의 집행이사회는 전문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며, 그 사무소는 본 연맹의 출판물, 회의자료, 기타 문헌의 종합정보센터로서 역할과 지역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무소는 집행이사회에서 임명된 사무소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무

소장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지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사무장으로 선임될 수는 없다. 지역별 분과회 의장과 사무장은 함께 지역활동에 관련된 부회의 조정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무소장도 그 조정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지만, 조정이사회의 의장, 사무장 및 재무담당관이 될 수 없다.

원탁회의는 대등한 전문직 신분과 관심을 지니고, 그 경험을 교환하기 위해 설립된 제한된 그룹이다. 원탁회의의 위임사항, 조직, 기능은 전문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소속부회, 분과회, 원탁회의 자체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탁회의에서도 의장과 사무장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부회, 분과회, 원탁회의 외에도 전문직 활동과 관련한 조직으로 <그림 3>에서와 같이 토론그룹(Discussing Groups), 실무그룹(Working Groups) 및 각종 특별위원회(Committee)들이 설치되어 있다. 토론그룹은 현재 인터넷, 사회적 책임, 참고봉사란 주제 영역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그룹은 특별한 전문직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특정 목적을 지닌 그룹이다. 현재 문맹퇴치를 주제로 별도의 모임을 가지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실무그룹은 적어도 매년 한번씩 그 부회, 분과회, 소속 부회와 분과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FAIFE; Committee on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저작권과 법적 문제에 관한 위원회(CLM; Committee on Copyright and other Legal Matters)가 각각 코펜하겐과

런던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도서관연맹은 국제문서관협회(ICA) 등과 같은 국제적인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세계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위원회(ICBS;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Blue Shield)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특별 조사나 호소문 작성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3. 8 출판 및 편집위원회

국제도서관연맹의 출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의 위원, 당연직 위원(본부 사무총장), 사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IFLA Journal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5~7명의 위원, 당연직 위원(출판위원회 위원 1명), 사무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도서관연맹의 출판물은 거의 모든 도서관 분야의 주제를 포함하며, 다양한 형태로 출판되고 있다. 이러한 출판물들은 본부 사무국, 전문이사회 내의 부회나 분과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발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제도서관연맹의 총서와 전문이사회 산하 조직에서 발간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출판물들의 표제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출판물로는 IFLA Journal, IFLA Annual, IFLA Directory, IFLA Facts & Features, IFLA Trends, IFLA and the Library World, IFLA and the Third World, IFLA Express, IFLA Communications, IFLA Core Programmes, Statutes Rules of Procedure, International Cataloguing, International Preservation News, UDT Newsletter 등을 예시할 수 있다.

4. 핵심추진사업의 사업별 주요 내용

국제도서관연맹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려면 최근에 개최된 정기총회 및 각종 회의에서 발표된 모든 자료 및 관련 연속간행물들을 망라하여 조사 분석해야 할 것이다. 우선 본 연맹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정기총회에서 발표되는 논문만을 살펴봐도 해마다 달리하는 주제 아래 10개정도의 소주제로 구분하여 도서관 관련 전체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제도서관연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핵심추진사업을 대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IFLA 1998a, 9-14).

4. 1 도서관직진흥사업 (ALP)

도서관직진흥사업(ALP; Advancement of Librarianship Programme)의 사명은 아프리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개발도상국에서 도서관전문직, 도서관,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내에서 중기(中期)사업의 목적은 계속교육과 훈련을 원조하고, 도서관협회의 발전을 지원하며, 문맹퇴치의 촉진을 포함한 일반 대중에 대한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도서관서비스에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직진흥사업은 제3세계에서 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본 연맹 내에서 촉매역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직진흥사업은 초창기에 캐나다 국제개발국(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CIDA)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의 사서들과 도서관들이 본 연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1984년 집행이사회는 아시아지역 분과회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지역 분과회로 개칭함에 따라 국제도서관연맹의 지역활동 부회는 아프리카지역 분과회,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지역 분과회,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지역 분과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도서관직진흥사업은 매우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이나 국제적 조직들은 물론이고 본 연맹의 관련 기구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본 사업의 국제사업거점(International Focal Point of ALP), 지역사무소, 지역활동 부회, 그 산하 3개 분과회, 기타 관련 인사나 기관들도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협력으로는 자금조달, 장학금, 부대사업, 회의, 세미나와 워크숍, 시험사업, 출판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같은 사업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도서관직진흥사업의 국제사업거점은 스웨덴의 욥살라대학도서관(Uppsala University Library)으로서 북유럽의 도서관들 및 도서관협회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IFLA 1998b).

도서관직진흥사업이 국제도서관연맹의 주요 사업으로 등장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76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제42차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준회원으로 활동하여 왔던 도서관과 도서관학교 등 시설이 기관회원으로 투표권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지역도서관 실무그룹(Working Group)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집행이사회가 제3세계에

있어서 본 연맹의 사업목적은 홍보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진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1975년에 설치를 승인하였던 3개 지역 실무그룹을 3개 분과회로 변경하였고, 이들을 포함하는 지역활동 부회(Division of Regional Activities)를 새롭게 설치하였다.

이러한 3개 분과회는 각각 사무소를 설치하여 의장, 사무장을 두며, 또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아프리카 지역사무소는 세네갈 다카(Dakar),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사무소는 태국 방콕(Bangkok),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사무소는 브라질 상파울로(Sao Paulo)에 설치하고 있다. 각 지역사무소의 임무는 (1)국제도서관연맹 출판물, 회의자료, 기타 관련 문헌에 대한 해당 지역의 종합정보센터, (2)지역의 뉴스레터 발행 및 배포, (3)본 연맹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센터, (4)사무소 운영에 관한 제반 재무회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역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활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국가도서관과의 하부조직 전개, 농촌지역 이용자에 중심의 공공도서관 설립, 장애자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 사서직의 지위 향상, 문헌정보학교육 교과과정 개발 및 계속 교육의 증진, 사서들의 국제 및 지역간 교류 촉진, 지역 내 도서관 관련 단체의 협력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4. 2 자료보존사업 (PAC)

자료보존사업 (PAC;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은 1984년 케냐 나이로비(Nairobi)에서 개최된 국제도서관연맹 총회 기간동안 도

서관자료의 보존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을 위해 보존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자료보존사업은 본 연맹과 함께 유네스코 및 국가도서관장회의의 재정 지원을 받아 1986년 개최된 도서관자료의 보존에 관한 회의 기간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Vienna)에서 착수되었다(IFLA 1999g).

자료보존사업은 모든 유형의 출판되거나 그렇지 않은 귀중한 도서관 및 문서관 자료를 가능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는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다. 본 사업의 중요한 역할은 어느 한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존이 차지하는 근본적인 위치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 정보나 문화유산 전문가, 정부 및 일반 대중들이 이를 의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급격히 발전하는 전자기술은 그 사업의 활동에서 다루어야 할 새로운 도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자료보존사업의 주요 전략은 훈련, 정보의 생산과 배포, 새로운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자료보존사업은 국제도서관연맹의 다른 사업들과는 달리 원래부터 중앙집중식이 아닌 분산식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이를테면, 국제사업거점(국제센터)이나 지역센터들은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선택과 정책에 스스로 책임을 갖고 있다. 이 사업의 국제사업거점은 1992년 이후부터 프랑스 파리의 국가도서관에 두고 있다. 또한 그 지역센터들은 미국 워싱턴의 의회도서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Caracas)의 국가도서관, 일본 동경의 국립식품도서관, 호주 캔버라(Canberra)의 국가도서관, 러시아 모스크바의 외국문학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프랑스 국가도서관은 서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의 지역센터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업거점과 지역센터들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국제도서관연맹과 각 센터간 협정에서 규정한 실무규칙에 의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각 센터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그 지역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관심사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임무는 자료보존사업의 목표를 승인하며, 출판과 세미나 및 회의 등을 통해 다른 센터들과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각 센터의 소장들은 재임기간동안 사업의 추진방침 등을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함께 모임을 갖고 있다.

4. 3 국제출판물활용사업 (UAP)

국제출판물활용사업(UAP; Universal Availability of Publications)은 기본적으로, 내용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출판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출판물은 소위 회색자료(grey literature)를 포함한 인쇄자료뿐만 아니라 시청각자료와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 출판물을 포함하고 있다(IFLA 1999h). 이 사업은 출판, 세미나, 회의, 교육 활동을 통해 그 활용의 개념을 촉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사명은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출판물에 대한 접근과 그 내용과 형식에 관계없이 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즉, 이 사업은 출판사, 배포자(도서관매상, 서적대행사, 데이터베이스 호스트, 인터넷 사이트나 노드, 네트워크 공급

자), 도서관이나 정보자원, 서비스를 받는 개별 이용자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그 관심영역도 수서, 장서개발 및 관리, 저작권 및 기타 법률상 문제, 법률상 보존, 일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장서폐기정책, 상호대출, 문헌제공서비스, 자료보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제출판물활용사업의 사무소는 국제적으로 상호대차를 증진하고 있는 영국 보스턴스파(Boston Spa)의 국가도서관 문헌제공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무소에서는 국제상호대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실무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상호대차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출판하고, 상호대차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거나 고무하고 있다.

국제출판물활용사업은 1998~2001년까지의 사업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특히 지적재산권, 정보와 무역 관련 장애 등을 감시하고 대응하는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 둘째, 전자환경 하에서 이용자, 사서, 출판사가 직면하는 문제를 연구하는데 실무적 역할을 한다. 셋째, 개발도상국을 위한 원조를 강조함과 더불어 도서관 협력사업의 발전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원한다. 넷째, 모든 국면의 사업영역에 관련된 출판사업을 제공한다. 다섯째, 이 사업의 개념을 증진하는 회의와 모임을 조직하고 참가한다. 여섯째, 도서관협력, 특히 문헌제공을 범세계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일곱째, 시각장애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한 출판자료에의 접근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고무한다. 여덟째, 전자기술 분야에서

전체적인 정보체계가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를 고찰한다. 아홉째, 국제도서관연맹 회원들에게 이 사업의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자원을 제공한다.

4. 4 국제서지통정과 국제기계가독형목록사업 (UBCIM)

국제서지통정과 국제기계가독형목록사업(UBCIM;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and International MARC)은 국제도서관연맹의 주요 사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사업은 1974년 착수한 국제서지통정사업(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이후에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국제기계가독형목록사업(International MARC)을 통합하여 국제서지통정과 국제기계가독형목록사업으로 그 사업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제도서관연맹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의 독일도서관(Die Deutsche Bibliothek)에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IFLA 1999b, 44).

국제서지통정과 국제기계가독형목록사업은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의 서지통정 및 서지데이터의 국제적 교환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표준화에 목적을 둔 관련 활동을 조정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서지 및 작성형식의 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출판사업을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이 사업은 전자의 경우에 적절한 분과회 및 부회의 전문적 활동에 대한 지원, 서지 및 작성형식(format)의 표준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 국제표준서지기술

(ISBDs), 국제기계가독형목록(UNIMARC) 및 기계가독형목록데이터베이스(MARC DB)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 서지통정을 이루기 위해 각 국가의 서지기관은 그 국가의 출판사항을 국제서지표준에 맞는 형식으로, 나아가 다른 국가의 서지기관들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기계가독형데이터의 교환을 위한 표준을 제정하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서 전자적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표준 개발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서지통정 부회(Division of Bibliographic Control)와 그 소속 분과회는 물론이고 정보기술 분과회(Section on Information Technology)의 업무에 관여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다른 부회나 분과회 및 ISO, TC46, ISBN, ISSN과 같은 다른 조직의 그러한 관련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서지통정과 국제기계가독형목록사업은 1998~2001년까지의 사업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특히 새로운 기술에 주목하여 서지표준과 지침을 개발하고 촉진한다. 둘째, 국제적인 수준으로 전자통제(authority control)의 개발을 촉진한다. 셋째, 전문가 집단인 국제기계가독형목록(UNIMARC)상임위원회를 통해 국제기계가독형목록을 유지 발전시킨다. 넷째, 그 표준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출판사업을 지속하며, 관련 모임의 회의자료를 출판한다. 다섯째, 서지통정 분야에 있어서 국제도서관연맹의 모든 관련 인사들에 관한 정보의 종합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4. 5 국제자료유통과 원거리통신사업 (UDT)

국제자료유통과 원거리통신사업(UDT; Universal Data flow and Telecommunications)은 1984년에 국제도서관연맹의 집행이사회에서 승인한 국제자료유통사업(Transborder Data Flow and Related Problems of Data Exchange)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에 집행이사회는 이에 대한 목표 수정과 함께 지금의 사업명으로 그 명칭을 개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사업은 본 연맹의 활동과 연구를 촉진하는 하나의 거점으로서 국제도서관사회에서 IFLANET 전자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도서관 분야에서 데이터의 전자적 유통에 대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표준의 사용을 조정하거나 촉진하며, 적절한 기술의 사용을 증진하고, 적절한 정책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캐나다 오타와(Ottawa)에 위치한 국가도서관 정보기술부에 그 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제자료유통과 원거리통신사업은 1992~1997년 사이의 중기(中期)사업계획에서 시작된 IFLANET 전자서비스의 성공적인 도입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지금도 IFLANET을 지원하는 사업 활동을 증진하고 있다. 또한 본 사업은 전자도서관의 개발에 적용할 정보기술과 표준을 분석하고 촉진하는 목표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네트워크 자원의 탐색, 정보 검색, 전자화 및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분야는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영역으로 여기고 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도서관 및 본 연맹의 사업과 과제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관련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테면, (1)IFLANET 전자서비스를 운영하고 개발하며 증진한다. (2)적절한 IFLANET 전자서비스나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여 다른 핵심추진사업이나 부회 및 분과회를 원조하고 지원한다. (3)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자기술의 효율적인 사용과 전자사서(digital librarians)의 개발을 촉진한다. (4)도서관의 특별한 요청에 대한 표준, 기술, 정책의 분석과 증진 및 개발을 위한 거점으로서 서비스를 한다(Swain 1998, 1; IFLA 1998a, 13-14).

5.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활동

국제도서관연맹은 다른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제도큐멘테이션연맹이나 국제문서관협회와는 자매기관으로서 상당히 긴밀한 협조로 공동연구발표 및 업무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유네스코와의 협력업무는 정관에까지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국제도서관연맹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지대하다. 본 연맹은 이러한 기관들과의 활동 외에도 각종 회의, 세미나, 워크숍, 교육 등을 개최하거나 제3세계에 도서관 관련 업무를 지원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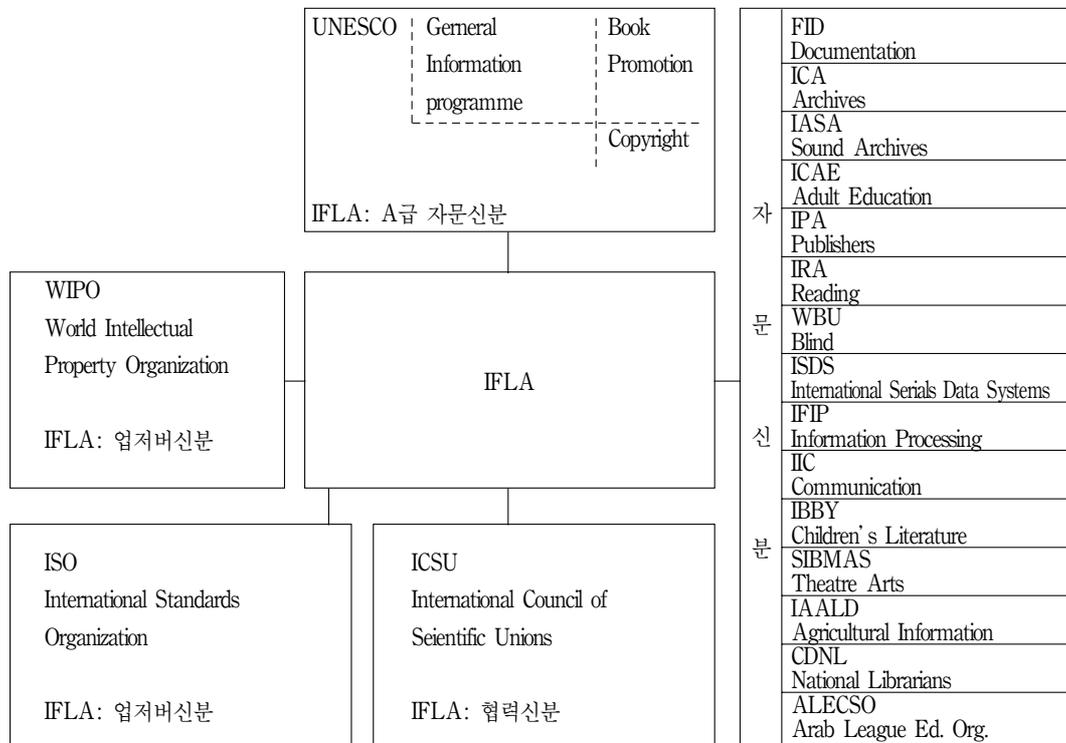
이러한 국제도서관연맹의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관계는 다음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 연맹은 유네스코(UNESCO)와 가장 높은 등급인 A급 자문신분(consultive

status A) 관계를 맺고, 국제과학조합협회(ICSU)와는 협력신분(associate status)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및 국제표준기구(ISO)와 옵저버신분(observer status)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밀접한 동반자인 국제도큐멘테이션연맹(FID)과 국제문서관협회(ICA)를 비롯한 도서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15개 비정부기구들과 자문신분(consultive status) 관계를 맺고 있다(IFLA 1998c).

6. 우리 나라와의 협력 현황

우리 나라 사서들도 많은 인원이 매년 개최

되는 국제도서관연맹의 총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총회에 등록할 때 조직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참가자 명단을 살펴보면 1985년 미국 시카고 총회에 9명, 1986년 일본 동경 총회에 21명, 1987년 영국 브라이튼 총회에 24명, 1988년 호주 시드니 총회에 10명, 1989년 프랑스 파리 총회에 34명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참가자 명단에는 1996년 중국 북경 총회에 68명, 1997년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에 40명, 199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총회에 12명, 1999년 태국의 방콕 총회에 25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수록된 인원은 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해 등록하거나 개인이 총회전 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한 경우이므로 총회 당일 개별적으로 참가하여 등록한 인



<그림 4> 국제도서관연맹과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원까지 고려하면 참가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사서들 및 도서관계 인사들의 국제도서관연맹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 도서관계에서도 이를 반영하듯이 국제도서관연맹 총회를 유치하고자 오랫동안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도서관계 인사들이 1976년 본 연맹의 제42차 총회를 유치하고자 미국의 워싱턴에서 개최된 1974년 제40차 총회 기간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때 본 연맹에서는 예전과 달리 기존의 총회를 둘로 나누어 개최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하나는 초청에 의한 총회(invitational general conference)로 하고, 다른 하나는 공개전문직 회의(open professional conference)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전자의 경우는 장소를 확정하지 않고, 단지 후자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이에 대해 1975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이병 목 1975, 14-15). 이러한 사유로 1975년 초에 발표된 도서관 관련 간행물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 도서관계에서는 예전과 같은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혼선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41차 총회의 결과에 따라 1976년에 한국에서는 우리 도서관계의 염원과 달리 순수한 학술대회 성격을 지닌 “국제도서관협회연맹 국제세미나(IFLA Worldwide Seminar)”가 개최되었고(KLA 1976, 7), 스위스 로잔에서 제42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그 이후 우리 나라 도서관계에서는 산발적으로 국제도서관연맹 총회의 한국 개최를 추

진하여 왔으나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금 총회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접촉과 노력을 기울려 왔다. 1999년 8월 태국의 방콕에서 열린 제65차 국제도서관연맹 총회의 폐회식장에서 2006년 제72차 총회 개최지로 우리 나라의 서울이 확정·발표되었다. 현재 국제도서관연맹은 각국을 순회하며 홀수년에는 평의회 회의와 총회(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를 함께 개최하고, 짝수년에는 총회(General Conference)만 개최하고 있다(IFLA 2000c).

현재 국제도서관연맹에 가입한 우리 나라의 회원 현황은 그 디렉토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FLA 1998d, 195-196). 한국도서관협회가 1955년부터 국가협회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년 총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참가단을 파견해오고 있다. 금년에도 한국도서관협회는 “미래의 도서관 창조를 위한 국제협력(Information for Cooperation: Creating the Global Library of the Future)”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개최되는 제66차 총회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한국도서관협회는 2006년 제72차 총회 개최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 6개관의 도서관들, 이들을 회원번호순으로 나열하면, 국립중앙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한국개발연구원 도서관,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이 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평의회, 부회, 분과회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69년 국제도서관연맹에 가입한 국가 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와 협력하여 우리 나라 사서들이 국

제도서관연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의 나머지 기관회원 도서관들은 각각 자체적으로 기관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 연맹의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72차 국제도서관연맹 총회의 서울 개최를 위해 나름대로 국내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00, 9). 그 일환으로 각종 국제회의에 도서관직원을 적극 참가시켜 국제회의 감각을 습득하고, 세계 도서관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회의의 개최를 대비하여 도서관직원의 외국어 능력을 육성하고자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 나라 도서관계 인사들의 본 연맹 총회의 참석 및 논문 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다.

7. 제언 및 결론

국제도서관연맹은 “모든 사람은 사회의 문화를 자유로이 누리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적 진보와 그 이득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맹은 서지, 정보서비스, 사서의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도서관 활동에서 국제적인 이해, 협력, 연구 및 개발을 증진하고, 아울러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를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나라 도서관계에서도 일찍부터 이러한

국제도서관연맹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왔다. 그 결과 1999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총회 폐회식에서 2006년 제72차 국제도서관연맹 총회의 서울 유치가 확정되었다. 세계 각국은 서로 경쟁적으로 이와 같은 국제회의를 자국에서 개최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국제회의 그 자체 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다양한 이득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국가마다 이러한 다양한 이득들 가운데 경제적 이득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도서관계 역시 총회의 유치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계산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나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다른 나라들보다 낙후한 전반적인 도서관 문제를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중심이 되어 국립중앙도서관 함께 도서관계 및 유관 분야 인사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차원에서 도서관의 정보자원은 국가의 경제발전에 직결되는 자연자원 및 인력자원과 함께 기본적인 요소라는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즉, 도서관의 정보자원은 소속 기관의 소유물인 동시에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이 활용할 균등한 기회와 권리가 있음을 천명해야 한다.

둘째, 우리 나라 도서관계에서는 국제도서관연맹 총회를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출판계, 데이터베이스산업계, 정보제공업계 등

을 망라한 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관분야의 많은 후원자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아가 총회 후 국제적 진출을 위해, 또한 우리 도서관 관계의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 사서들이 국제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최신 기술과 방법을 도입하고, 주제 발표 등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넷째, 한국도서관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전반에 관한 이론연구와 실무추진에서 얻어지는 지식과 경험을 원만히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사서의 질적 향상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문헌정보학과 도서관 현장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전술한 두 기관은 도서관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임을 정부 내의 관련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키면서, 한편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서관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2000. 『2000년도 주요 업무 계획』,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박옥화. 1982.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역사적 고찰. 『도서관학논집』, 9: 85-113.
- 이병목. 1975.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의 조직과 활동. 『도서관』, 30(2): 8-38.
- Havard Williams. P. 1978. “국제도서관협회연맹사. 황문성 역. 『도서관』, 226: 79-85.
- IFLA. 2000a. “IFLA Directory of Executive Board Members.” [online]. [cited 2000.28]. <<http://www.ifla.org/III/eb/exeboard.htm>>.
- IFLA. 2000b. “Activities & Services” [online]. [cited 2000.2.17]. <<http://www.ifla.org/act-serv.htm>>.
- IFLA. 2000c. “IFLA Annual Conference.” [online]. [cited 2000.2.18]. <<http://www.ifla.org/IV/index.htm>>.
- IFLA. 1999a. “More about IFLA.” [online]. [cited 1999.12.21]. <<http://www.ifla.org/III/intro00.htm>>.
- IFLA. 1999b. *IFLA Council Report 97-99*. Hague: IFLA.
- IFLA. 1999d. “IFLA’s Long Term Policy.” [online]. [cited 1999.6.1]. <<http://www.ifla.org/III/eb/ltpolicy.htm>>.
- IFLA. 1999e. “Statutes of IFLA.” [online]. [cited 1999.6.1]. <<http://www.ifla.org/III/statute.htm>>.
- IFLA. 1999f. “Statistics of Membership of IFLA Sections.” [online]. [cited 1999.9.3]. <<http://www.ifla.org/VII/secmem99.htm>>.

- IFLA. 1999g. "IFLA Core Programme for the Advancement of Librarianship (ALP)." [online]. [cited 1999.10.16]. <<http://www.ifla.org/VI/admin/general.htm>>.
- IFLA. 1999h. "Universal Availability of Publications Core Programme." [online]. [cited 1999.10.13]. <<http://www.ifla.org/VI/2/uap.htm>>.
- IFLA. 1998a. *Medium-Term Programme 1998-2001*. Hague: The Professional Board of IFLA.
- IFLA. 1998b. "IFLA Core Programme for the Advancement of Librarianship (ALP)." [online]. [cited 1998.9.16]. <<http://www.ifla.org/VI/admin/general.htm>>.
- IFLA. 1998c. "IFLA: An Introduction." [online]. [cited 1998.3.11]. <<http://www.ifla.org/III/intro98.htm>>.
- IFLA. 1998d. *IFLA Directory 1998-1999*. Hague: Headquarters Staff of IFLA.
- IFLA. 1990. *Statutes of Rules of Procedure*. Hague: IFLA.
- KLA. 1976. *Proceedings of IFLA World wide Seminar*.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News Section." 1988. *IFLA Journal*, 14(4): 372-373.
- Swain, Leigh. 1997. *IFLA UDT Core Programme: 1997-2002 Medium-Term Programme*. Ottawa : IFLA. p.1.
- Wijnstroom, Margreet. 1980.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n *ALA World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R. Wedgeworth, ed. 262.